

스포츠조선

17

99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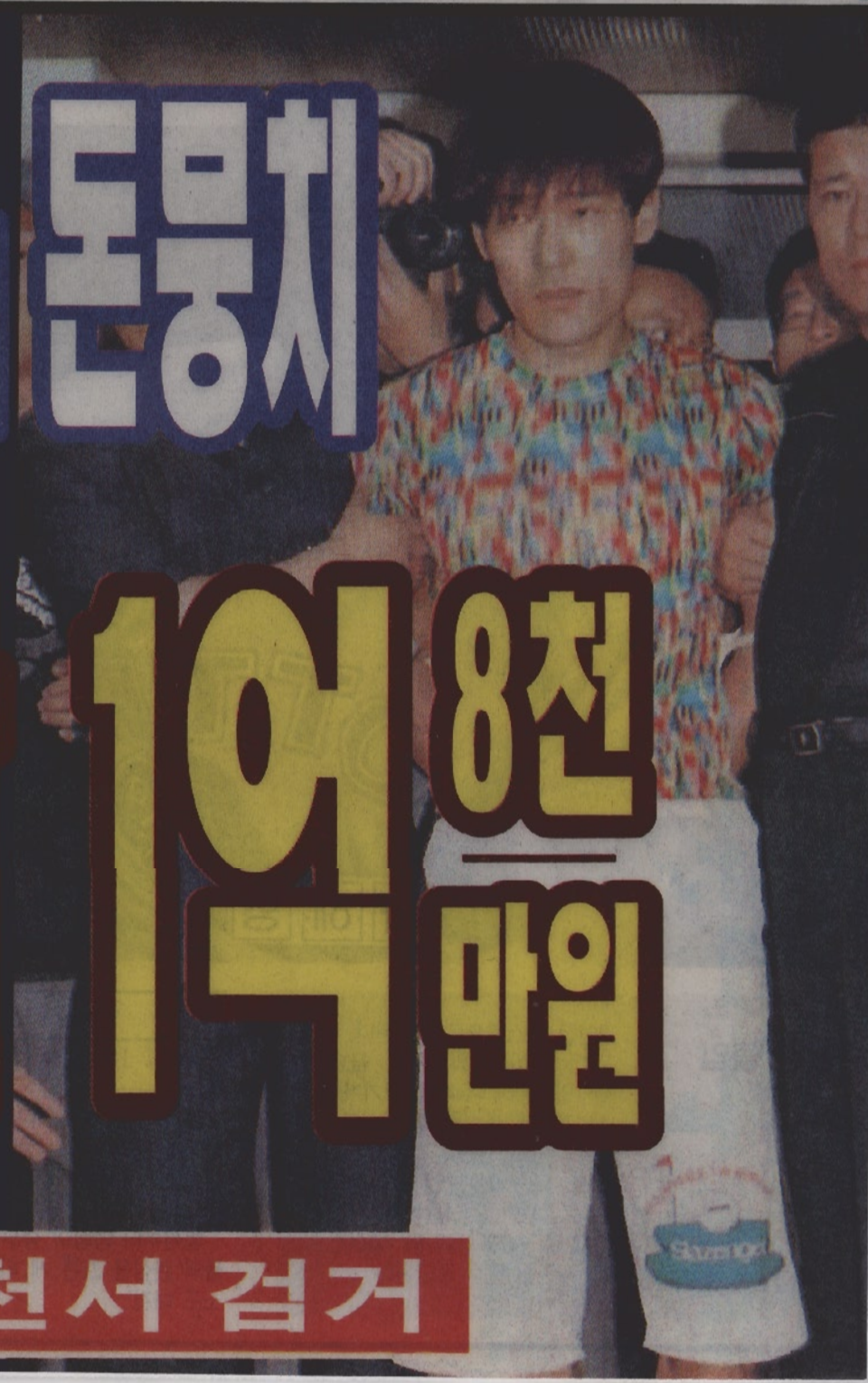
토

<50판>

시찰이
신인권 집에
돈봉치

현찰 1억 8천
만원

어제 순천서 검거





기네스북 오른
방한 美건축가

엘머렘



유리격과 신기록 벽안의 태권도인

유리격파로 기네스북에 오른 벽안의 태권도인이 한국에 왔다. 건축가 모리스 엘머렘씨(45·미국 뉴욕 모리스 콘트랙터스 앤드 디자이너 대표).

종주국 방문차 한국에 온 엘머렘씨는 유리격파 관련, 최근 2개의 신기록을 기네스북에 등재한 공인 5단의 태권도인이다.

지난 5월 22일 유리판 90장을 팔꿈치로 부순데 이어 50장을 손바닥으로 깨뜨린 것.

엘머렘씨는 이 밖에 또 하나의 기록을 기네스북에 올려놓은 상태.

나무판 4개를 공중에 날려 헤딩으로 한꺼번에 다 격파하는 것으로 지난 94년 세운 기록이란다.

맥주병을 깨뜨리는 태권도인은 간혹 찾아볼 수 있으나 수십장의 유리판을 부수는 태권도인은 흔치 않다.

때문에 크고 작은 태권도 대회가 열릴 때마다 1순위로 초청돼 시범을 보일 정도로 잘 나간다고.

"건축처럼 격파도 종합예술이예요. 훈련, 집중력, 힘... 여러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뤄 합일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나 상처없는 영광은 없다. 30바늘 이상 꿰맨 오른팔을 비롯, 온 몸에 시뻘건 지렁이가 기어 다닌다.

"깨뜨리는 순간 몸을 뒤로 확 빼야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파편에 맞아 살이 찢어지기 일쑤예요."

23년전 콜롬비아 대학 재학중에 태권도에 입문, 10년전부터 유리 격파를 시작했다고. "호기심 삼아 한두장 올려놓다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마약같

아요. 한번 성공할 때마다 내가 살아있다는 강렬한 느낌에 온 몸에 소름이 돋아 또다시 도전

90장은 팔꿈치 50장은 손바닥으로 '외장창'

온몸 꿰맨 상처...대회마다 시범초청 1순위

하게 되거든요."

그는 태권도 외에도 가라데, 쿵후 등 못하는 격투 종목이 없는데 지금까지 450여 대회에 출전, 50여개의 금메달을 따냈다고 자랑이다.

스승인 리처드 전 미국태권도협회(USTA) 회장이 이끄는 20여명의 동료 회원들과 함께 지난 11일 태권도 종주국 한국에 온 엘머렘씨는 국기원 방문 등 일정을 마치고 17일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정경희 기자)

외 관망과 기타연주.

★이상형 ▲나이=25~27세 ▲키=1m62 정도 ▲직업=회사원이나 대학원생 ▲상대는 요=저에게 힘을 주는 따뜻한 한미미를 견뎌낼 수 있는 분. 껍딱한 외모를 갖춘 여성이라면 좋겠습니다.

편집=김용표 기자

2000년 특별기

모든 새혼자들을 위하여...

재혼전문 간담사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행복출발'에서 시작한 새천년 맞이 특별기획 "2000년 새해는 꼭 사랑받는 이와함께"라는 테마로 1999년 12월31일까지 이어지는 대장전 퀘

Maurice Elmalem World Champion is visiting Korea who is an Architect in U.S.A . he trains Tackwondo in New York and has a new world records in the " Guines Book of World Record " . he is visiting the home land of Korea with the U.S National team for advance taekwondo training. he has a 5th Dan Black Belt and established two new World records on May .22.99 by Breaking 90 sheets of Glass with he elbow . and 50 sheets of Glass with his knife hand. also he holds another world record in the Guines Book by breaking 4 board speed head break while boards flying in the air without any support. It is very rare to find trainee who can break Glass sheets . that is why he is usually invited very often to demonstrate Tackwondo in every big competition . Breaking is an Art like Architecture training. Concentration . Power.... it needs Harmony to complete. However victory always come with pain . so he has about 30 cuts on the right arm and all over his body . " You should push your body backward otherwise your skin can be teared " . He started doing TaeKwonDo 23 years with experience training of 33 years in the Martial arts . Breaking Glass for the first time it was just for fun it is like a drug . ones I Succeeded breaking the Glass I get so excited that is why I keep challenging the best in the world . Besides TaeKwonDo he is a Master Fighter and is involve in Karate . Kongfu.and exte ... He has won 50 Gold Medals and about 450 competitions . He visits Korea with his Grand Master Richard Chun (president of USTA) and 20 friends from the US national team . he will return on the 17 of july to USA after training in Korea .